

지역 매아리

정읍시 CCTV통합관제센터
안전 지킴이 공로 감사장 받아

정읍시 CCTV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 인사팀 관계요원은 최근 안전 지킴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공로로 정읍경찰서 서장(총경 신일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통합관제센터에 따르면 임 의원은 지난달 22일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가출인을 추적·발견하고 가족에게 인계했다.

이외에도 그간 물괴도주 차량 검거와 주취자 발견 등 정읍시 안전 지킴이 역할을 다해왔다.

통합관제센터는 지난 2016년 12월 개소 후 관제요원의 적극적인 CCTV 모니터링과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화질 CCTV를 교체하고 시각 자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품격있는 안전 행복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무장읍성 문화재지역
주민공감정책 프로그램 호응

한반도 방어 요충지, 동학농민혁명 무혈 입성지. 수많은 수식어를 갖고 있는 고창군 무장읍성에 대한 주민역사 교육이 열려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5일 고창군에 따르면 무장면 관아와 읍성에 대한 가치와 보존 중요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3번(17일, 24일, 31일)의 강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 3일 첫 강의에선 무장면 대강당을 빼곡히 채워 지역 주민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교육은 ▲무장읍성의 발굴성과 ▲무장읍성과 동학농민혁명 ▲조선시대 읍성과 무장읍성 ▲조선의 신병기 '비격진천뢰'로 구성됐다. 교육 내용은 모두 독립적이거나 청강자들은 무장읍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강사와 질의응답 할 수 있다.

무장읍성은 지난 13여년 동안 시·발굴조사가 이뤄졌으며 현재 8차 발굴조사(연장)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는 국내 최대규모의 읍성 사창(한술·조선시대 각 지방군현에 설치된 곡물대어 기관) 건물터, 비격진천뢰 등 대한민국 유물사에 있어 굵직한 발견들이 이뤄져 역사·문화재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하지만 이러한 발견들 속에서 무장읍성은 역사 관계자들에게 있어 매우 흥미로운 곳이지만, 인근 주민들에게는 그 내용을 알기 어려웠다.

이에 고창군은 문화재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쉽고 재미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무장읍성에 대한 역사적 자긍심을 높이고, 주민·군민 모두 무장읍성에 대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고창청보리밭 축제, 전년대비 방문객 11%·체험·판매매출 57% 증가 '대박'

'초록빛 힐링'. '한반도 첫수도로 떠나는 봄 소풍'을 주제로 한 2019년 고창 청보리밭에 4만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5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폐막한 '제16회 고창청보리밭 축제(4월 20일~5월12일, 23일간)'에 모두 44만 5000여명의 방문객이 몰렸다. 이는 지난해 40만1000여명에서 11%가 늘었다.

지난 5일(어린이날)에는 하루 최대인원(5만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행사장에서 체험과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면서 거둔 수익도 8억3000여 만원으로 지난해(5억3100만원) 대비 57%가량 증가했다.

고창청보리밭축제위원회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주말 사이 날씨가 화창해 가족단위는 물론, 전문 여행사나 들이객이 몰린 것이 흥행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올해 청보리밭 축제의 가장 큰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꼽힌다. 청보리밭 축제 방문 관광객에게 고창관내 주요 음식점과 관광지 10%할인쿠폰 1만5000장이 배포됐다. 그 결과 행사장과 다소 먼 거리에 불과하고 고창읍내 음식점, 석정휴스파까지 찾아와 쿠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류시간도 길어졌다. 트리아트, 사계절 포토존, 농부 황금순은 축제 시작 전부터 SNS인증샷과 주요매체(주요포털 실시간 검색어 랭크)에 소개되며 인기를 끌었고, 차없는 거리 운영



지난 12일 폐막한 '고창청보리밭 축제'에 총 44만5000여명의 방문객이 몰렸다.

으로 가로수길과 입어웃 주변으로 관광객 동선이 확대됐다.

그 결과 '스처가는 축제'라는 비판이 사라지고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며 참여하는 대한민국 대표 경관축제로 자리매김 했다 평가다.

특히 조용한 농촌 시골마을에 하루 5만명 넘게 외지인이 찾아 왔지만 우려됐던 교통대란은 없었다. 군은 축제장 입구를 내형차와 '소형차' 주차장으로 분산 운영해 병목현상을 사전에 차단했다. 또 주요 교통거점 지역에 교통통제 전문인력(10명)을 배치해 혼란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였다.

이밖에 대폭 확충된 편의시설(화장실, 물품보관소, 수유실)과 부스 판매원·지역주민의 친절함도 호평을 받았다. /고창=김영식 기자

다. 다만, 지역특산물 홍보관의 관심도 저조, 비포장 주차장 먼지 등은 아쉬움으로 지적됐다.

고창군 관계자는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2020년에는 고창군 전역에 유채 등 1500여ha의 경관지구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며 "청보리밭 축제와 함께 한반도 첫 수도 고창에서 경관농업을 통해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 누구나 잘 사는 고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축제가 끝난 후에도 학원관광 농장에서는 약20여만평의 꽃 경관지구를 설정해 해바라기, 메밀꽃 등 다양한 꽃을 심어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100일간의 꽃잔치를 이어간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신차 구입비 추가 지원

부안군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 전환 지원사업을 재공고하여 추가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소형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에게 대당 500만원을 정액

으로 지원한다.

지원물량은 4대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신청을 접수 받으며, 일반적으로 차량(생산연도)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선정하고, 차량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차량 순으로 우선순위를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국·공립시설 지역 차량 및 조기폐차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희망하는 경

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LPG 전환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지원신청서(부안군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를 작성해 어린이통학차량 유상운송 허가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부안군 환경과 환경정책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부안군 최형인 환경과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삼호유항오리, 업무 협약식 가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가 최근 정읍지역 축산물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삼호유항오리와 협약식을 가졌다.

두 단체는 장애인 복지기금을 공동

조성하고 농축산분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두 단체는 사업과 마케팅, 홍보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

게 된다. 또 공동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출자에 장애인 일자리와 복지, 교육 등에 필요한 기금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는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된 단체다. /정읍=김대환 기자

"주말엔 부안으로 소풍가요"

부안군, 시티투어버스 운영

부안군은 오는 18일부터 채석강과 내소사, 변산해수욕장 등 부안군 대표 관광지를 쉽고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는 '부안 번산에 반하다'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안 시티투어버스는 매주 토요일 주 1회(단 7~8월 금·토 운영) 사전예약을 통한 5명 이상 모집시 운영하며 탑승장소는 채석강주차장, 전주한옥마을(트윈호텔앞), 전주역이다.

운영코스는 전주한옥마을(오전 9시)-전주역(오전 9시 15분)-채석강주차장(오전 10시 50분)-채석강(자율종식)-변산해수욕장(오후 1시 10분)-내소사(오후 2시)-곰소갯길발효센터(오후 3시 15

분)-채석강주차장(오후 4시 25분)-전주역(오후 6시)-전주한옥마을(오후 6시 15분) 등이다.

이용요금은 관광지 입장료와 체험료(삼석소금체험)를 포함해 부안탐승(채석강주차장)시 성인기준 6000원, 전주탐승(한옥마을, 전주역)시 성인기준 1만원으로 체험상품을 갖고 갈 수 있게 설계했으며 식사비와 여행자 보험은 개별부담이다.

특히 부안 시티투어버스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탑승해 부안 관광지에 대한 전문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그저 눈으로만 즐기는 관광이 아닌 유익하고 알찬 관광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내일부터 3일간 내장산 문화관광 일원에서 '내장산 캠핑대회'가 열린다.

자연과 함께, 로컬푸드와 함께!

내일부터 3일간 정읍 내장산 캠핑대회 열려

정읍시가 내일부터 3일간 내장산 문화관광 일원에서 '2019 내장산 캠핑대회'를 연다.

행사는 2019~2020 정읍 방문의 해를 맞아 올해 처음 개최된다. 아름다운 자연에서 휴식을 취하고 공정캠핑문화의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의 상생을 위해 마련됐다.

내장산 캠핑대회는 전국의 캠핑객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했다. 공정캠핑의 취지에 맞게 참가비 3만원은 정읍지역의 로컬푸드를 구입할 수 있는 쿠폰으로 제공된다.

대회 기간에는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캠핑 요리와 정호영 셰프의 요리 퍼포먼스와 버스킹 공연, 체험활동, 농특산물 판매·홍보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 외에도 캠핑 관련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돼 캠핑객의 관심

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개막식에서는 초청 가수 박상민과 강지민의 축하 공연이 펼쳐진다. 건전한 캠핑문화를 확산을 위한 '캠핑 예절교육'과 '캠핑 안전교육', '공정캠핑 양을 찾아가라!'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특히 '냉장고를 부탁해'의 스타 셰프 정호영 셰프 초청에 열리는 요리 퍼포먼스와 내장산 캠핑 요리대회 등은 참가 가족에게 흥미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진섭 시장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유한 내장산 국민 여가 캠핑장에서 가족, 사랑하는 사람과 편안한 휴식을 누리길 바란다"면서 "건전한 캠핑문화 확산을 위해 세심히 준비해 캠핑객의 불편은 최소화하고 감동은 최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간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간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번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간산뽕주 GIFT SET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세 | 750ml 1ea/12% |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세 | 375ml 5ea/13% | GIFT SET 6세 | 500ml 향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7세 | 375ml 2ea/13% | TEL: 063-584-9900 www.gangsanwine.com